

2022년 6월 GCC 관광시장동향

“GCC 지역 입국 정책 변화 및 글로벌 관광 협력 확대 동향”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중동 걸프협력기구)

: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6개국이 해당

1. GCC 포함 중동 지역 입국 정책 변화

- (바레인) 2022.2.20일부터 바레인 입국 시 공항에서 요구했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 (요르단) 2022.3.1.일부터 요르단 입국 시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다만,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 코드를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필요 (<https://www.gateway2jordan.gov.jo>)
- (쿠웨이트) 2022.5.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오만) 2022.5.2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2022.5.1.일부터 입국제한 조치(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및 입국 후 자가 격리 의무제도 폐지.
다만, 코로나 19 확진 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 (아랍에미리트) 각 공항(연방정부)에 따라 다른 입국 정책 시행
 - (아부다비) 해외여행객 대상 격리조치 폐지, 다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출발 48시간 내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 백신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입국 전 한 달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완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은 불필요.
(16세 미만의 경우는 별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두바이) 대부분의 정책은 아부다비 공항과 동일하나, 두바이 공항의 경우 12세 미만일 경우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또한, 두바이공항 도착 시 랜덤으로 PCR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비용 없음), 이 경우 숙소로 이동하여 음성 통보시까지(통상 3~5시간 소요) 대기 후 활동이 가능 함.
 - * 두바이공항 단순 경유 시에는 추가 필요사항은 없으나, Immigration을 통과 하여 잠시라도 입국을 할 경우(Dubai Connect 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두바이 내 호텔 대기 환승서비스 등 포함)에는 입국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됨

- (카타르)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나, 출국지를 Standard와 Red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Red List(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7개국)발 백신미접종자에 한해 입국을 불허하고 있음. 한국은 Standard 국가로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이 가능 함.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는 완치 판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면역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나 과거 확진 판정 공식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GCC 시장 중심의 중동 항공편 증설

- 각 국의 입국정책 변화와 맞물려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감소했던 중동발, 중동행 항공편의 수가 회복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항공 연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페인과 스위스로 가는 신규 유럽 노선 취항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항공사인 사우디아 항공은 7월부터 제다에서 바르셀로나까지, 8월에는 리야드에서 취리히까지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2개 노선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해당 노선들은 연간 6만개 이상의 양측 이동 좌석을 제공하게 될 예정으로, 이번 협의를 토대로 중동-유럽간 이동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됨.
- 카타르 항공은 그리스 산토리니 항공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미코노스행 항공편을 재개했음. 이번 산토리니 신규 취항은 아테네, 미코노스에 이어서 카타르-그리스를 잇는 세 번째 직항 노선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카타르 항공은 아메리칸 항공과 전략적 제휴 확대를 통해 아메리칸항공은 걸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미국 항공사가 되었으며, 아메리칸항공 고객들은 도하를 통해 16개국을 오가는 카타르항공 항공편 여행을 예약할 수 있게 되었음. 양사의 제휴를 통해 중동지역은 250개 이상의 북미 도시와의 연결성이 높아졌음, 미국 관광객의 중동,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 됨

3. GCC 지역 인바운드 유치 확대를 위한 글로벌 관광 협력 증대 및 시장 확대

- GCC 국가들은 세계 관광 시장에서 주요한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 관광 시장에 있어서 주요한 관광 수요층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유럽 주요국은 GCC 지역과의 관광 협력 증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그리스)** 지난 5월말 아테네에서 그리스-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되었고, 해당 포럼중 제5차 그리스-사우디 장관급 회의에서는 특별 관광 상품(special interest product)을 중심으로 한 관광 협력의 가능성과 관광 시즌 연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음. 양국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분야와 함께 미식, 건강 및 웰빙, 겨울, 럭셔리, 크루즈 및 스포츠 관광에 중점을 둔 특별 관광 분야에서 더욱 협력하고 투자, 인적 자원 개발, 교육, 행사 조직, 개발 및 홍보 분야에서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독일)** 독일 국립 관광청(GNTB;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은 지속 가능한 야외 활동을 강조하고 GCC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의 자연을 품으세요(Embrace German Nature)” 캠페인을 시작함. GCC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여름 기후를 가진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GNTB는 GCC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자연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중임.
- **(오스트리아)** 쿠웨이트의 저비용 항공사인 자지라 항공이 개최한 무역 행사에서 오스트리아 국립 관광청(ANTO;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을 중심으로 비엔나와 오스트리아의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홍보. 오스트리아 측 담당자는 예방 접종과 PCR 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편하게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스트리아의 풍부한 역사, 문화, 독특한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자지라 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쿠웨이트와 비엔나간 비행편을 개설하고, 직항편을 통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협업을 추진중에 있음.
- **(영국)**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 비자 면제 제도를 도입. 기존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영국에 입국이 가능했던 반면 이번 조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영국 여행(관광, 비즈니스, 학업, 의료)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사우디-영국 간 관광객의 수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외교부(22.06.24.).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https://www.breakingtravelnews.com/news/article/american-airlines-and-qatar-airways-expand-strategic-alliance/>

<https://www.routesonline.com/news/29/breaking-news/298191/barcelona-zurich-to-join-saudias-network/>

<https://www.traveldailynews.com/post/qatar-airways-touched-down-in-santorini-greece>

<https://www.arabnews.com/node/2094881/saudi-arabia>

<https://www.gdnonline.com/Details/1103937/Germany-launches-new-nature-tourism-campaign>

<https://www.albawaba.com/business/pr/jazeera-airways-and-austrian-national-tourist-office-promote-travel-vienna-1479146>